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한국산업위생협회

발전 기금 모금 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 ▷ 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및 단합
 - ▷ 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 ▷ 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 ▷ 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 ▷ 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
3. 기부혜택
 - ▷ 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 ▷ 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 워크숍, 힐링캠프, 체육활동
 -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 ▷ 운영방법 :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 정기적인 감사 실시
 -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 ▷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 ▷ 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
(010-2345-3035)

협회지(2025-Vol. 3 가을호) 발간 안내



한국산업위생협회의 협회지(2025-vol. 3 가을호) ISSN2983-368X가 발간되어 안내드립니다.
한국산업위생협회 홈페이지의 알림소식-KOHA협회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kohma23.iwinv.net/202503/#p=1>

정부·국회

안전보건공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고용노동부 민원 서비스 이용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고용노동부 민원서비스 이용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장애 복구시까지 고용노동부 온라인 서비스 일부가 중단됩니다.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대표홈페이지 서비스(전면 중단)

사이트 명칭	주소	주요 안내사항
고용노동부 대표홈페이지	· http://www.moel.go.kr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이용

2. 노동·산업안전 분야 온라인 서비스(전면 중단)

사이트 명칭	주소	주요 안내사항
노동포털 (세무일급, 대지급금)	· http://labor.moel.go.kr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우편, 팩스, 지정별 대표 e-메일 등으로 민원 신청 * 연락처는 정부파일 참조
노동포털 (산업재해조사표, 석면해체 제거작업,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 신고)	· http://labor.moel.go.kr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우편, 팩스, 지정별 대표 e-메일 등으로 민원 신청 * 연락처는 정부파일 참조
노동포털 (고용평등인권상담서비스)	· http://labor.moel.go.kr	· 고용평등상담 대표전화(1551-9811) 이용
안전일대 신고센터	· http://labor.moel.go.kr	· 위험상황신고 전화(1588-3088) 이용
노동위원회의 홈페이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http://www.nlrc.go.kr	· 정부24 온라인 신청(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의 방문 또는 팩스 접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산재 재심사)	· http://www.laciad.go.kr	· 산재재심사위원회 대표전화(044-202-8499) 유선 문의

3. 고용24 서비스

①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 접속 지연

주요 지연 내용	주요 안내사항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 부하로 인해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1차 실업안정 교육 포함)' 간헐적 접속 지연 발생	· 서비스 지연 발생 시 잠시 후 재시도 또는 이용량이 많은 시간(09~18시) 외 수강 진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장애 복구시까지 고용노동부 온라인 서비스 일부가 중단됩니다.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work24.go.kr/cm/main.do>

주간 사망사고 속보

[9/12, 경북 김천시] 태양광 구조물 설치 중 떨어짐
[9/12, 경기 안산시] 냉각설비 기밀시험 중 폭발
[9/15, 충남 당진시] 부품 인양 작업 중 떨어짐
[9/16, 강원 원주시] 적재물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지게차와 부딪힘
[9/16, 인천 동구] 옷소매가 선반에 말리면서 끼임
[9/18, 서울 강서구] 수거차량과 전신주 사이에 끼임
[9/20, 충남 부여군] 받침대 파손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림
[9/21, 경북 경주시] 뒤로 밀리는 차량에 깔림
[9/23, 경남 양산시] 고철 회수 작업 중 고철 구조물에 깔림
[9/23, 충북 음성군] 비계 설치 작업 중 떨어짐
[9/24, 전북 남원시] 바닥이 무너지면서 떨어짐
[9/25, 강원 횡성군] 지붕에서 태양광 설치 작업 중 떨어짐
[9/25, 인천 계양구] 철골 위에서 해체 작업 중 떨어짐

『노동안전 종합대책』 실행방안 집중 논의

안전보건공단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소규모 사업장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등 총력 대응”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9월 22일(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세부 실행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중 이사장과 전국 31개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공단은 회의에서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소규모 사업장 안전역량 향상 ▲외국인노동자 등 산재취약계층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안전의식 확산 등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공단이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의 핵심주체가 되어 안전한 일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하반기 산재사고사망 감소의 변곡점 마련을 위해 지역별 사고사망 감소목표를 설정하고, 산재예방 사업이 최일선 노동자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단의 모든 기술지원 사업에 노동자 면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현중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전사적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통해 반드시 산재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산재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식을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 이행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641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안전신문

25년도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추계 세미나 개최

노동부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차관급 본부 격상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2025 추계 세미나

일 시 | 2025. 11. 7(금) 13:00 ~ 17:00

장 소 | 테이크 호텔 3층 루미나스홀
(경기 광명시 신기로 22)

프로그램 |

시간	내용	비고
12:00 ~ 13:00	등록 및 접수	
13:00 ~ 13:10	프로그램 안내 및 개회사	
13:10 ~ 13:40	정책 및 기업 동향	고용노동부정책실 산업보건정책팀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사업팀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팀
13:40 ~ 14:10	•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	
14:10 ~ 14:40	• 직업병 예방사업, 현장과 사람 중심으로 • 업무상 질병 발생 절차 개청 동향과 기업의 대응	
14:40 ~ 15:00	참석자 소통 및 전시 부스 견학	
15:00 ~ 15:20	사례발표 I	산업안전보건정보포럼 SK케미칼·정유구·IL
15:20 ~ 15:40	• 개인화 시대 맞춤 바인 케어 • 화학물질 사전 인고평가 및 현장 MSDS 관리 체계	
15:40 ~ 16:00	참석자 소통 및 전시 부스 견학	
16:00 ~ 16:20	사례발표 II	SK가스·정유구·IL LG화학·정유구·IL
16:20 ~ 16:40	• IoT 활용 밀폐공간 관리 사례 • 전지 실험 공정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고도화 방안	
16:40 ~ 17:00	단체 기념 촬영 및 경품추첨	

2025년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이하 기산협) 추계 세미나를 위와 같이 개최합니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동향과 전문가 특강, 기업체의 우수사례 발표 등 실질적인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회원사 및 기업체의 안전보건 담당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isanhyup.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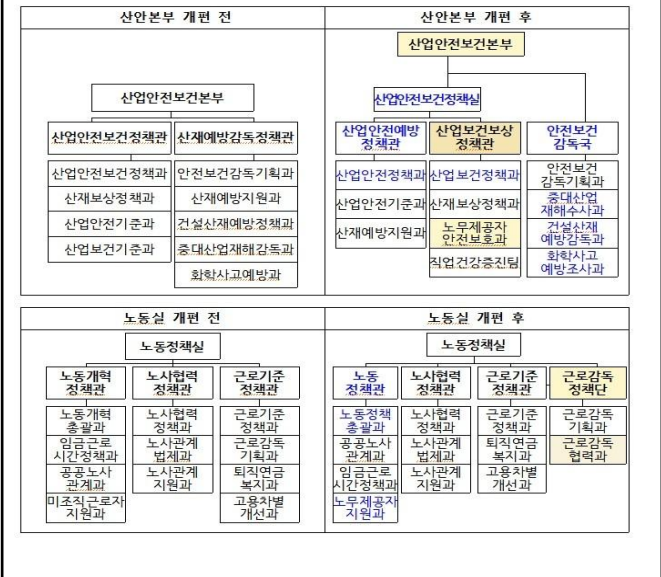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의 현행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된다. 당초 조직 개편 여부 논의 때의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차관급 본부 격상으로, 신설 조직은 아니나 노동부 내 입법권을 활용할 수 있겠다 분석이 나온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 내 현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를 격상해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 및 조정하는 차관급 본부 신설하는 안이 담겼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 조직 신설, 산재예방감독 기능 확대 등 강화 등이 목적이다.

현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문재인 정부 때(2021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해 출범한 것이다. 이후 최근 산업안전보건청과 함께 산재예방 조직 개편안 중 하나로 안전에 올랐다. 논의 때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승격안은 입법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 꼽혀 힘이 실린 바 있다.

행안부는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817>

오이레터

007은 왜 테메레르 그림 앞에 앉아있었나?

영화 <007 스카이프>의 초반, 한때는 최고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뒤쳐진 취급을 받는 제임스 본드가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서 윌리엄 터너의 그림 '전함 테메레르'를 응시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거대한 범선은 증기선에 이끌려 해체를 위해 마지막 항해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젊은 정보 요원 Q가 다가와 말합니다.

"한때 잘 나갔던 배가 불명예스럽게 끌려가고 있잖아요. 시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인가 보죠?"

흥미롭게도 이 그림 옆에는 터너의 또 다른 걸작, '비, 증기, 그리고 속도'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상징인 증기기관차가 질주하는 이 그림은 '전함 테메레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기술 변화가 산업의 지형도를 빠르게 바꾸는 오늘날, 이 대조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신기술은 산업재해라는 낡은 전함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시대적 해결사일까요, 아니면 그 화려한 증기 이면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새로운 위험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신기술 도입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그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성찰해야 할 시점에서 있습니다.

정(正): 스마트 기술이라는 새로운 약속

산업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처럼 보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은 사고 예방과 원인 규명을 위한 대책으로 스마트 기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부착된 안전모와 안전대, 바디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통합 관계 플랫폼은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감지하고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현장에 도입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됩니다.
- 이동/방문 노동: 고정된 사업장 관리가 어려운 노동자들의 작업을 통제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 공공기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명분으로 도입됩니다.

이처럼 스마트 기술은 '안전'이라는 명분을 통해 현장의 낡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 즉 '정(正)'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146>

심리사회적 유해요인에도 기준치가 필요하다

기준 없는 심리사회적 위험

화학물질, 소음, 방사선 같은 전통적인 유해요인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은 85dB 이상이면 보호구 착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 스트레스, 번아웃, 직장 내 갈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유해요인(psychosocial hazards)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OSS를 이용해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할 때 참고집단의 중위수 값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유럽연합(EU) 역시 법과 지침을 통해 사업주에게 위험평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70% 이상이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 모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공통된 어려움의 원인은 "어느 수준에서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 Health에 실린 한 논문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자, 기업 보건 담당자, 정책 자문위원들이 함께 모여 문헌 검토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답하고자하는 물음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심리사회적 요인에도 직업적 노출기준(OEL, Occupational Exposure Limit)을 마련할 수 있는가?"

현재의 문제점: 질병이 발생한 이후의 접근

지금까지의 심리사회적 위험을 다루는 연구는 대체로 우울증이나 번아웃 같은 질병 수준의 결과를 기준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에는 두 가지 큰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예방적 시점에서 너무 늦습니다. 질병이 발현된 이후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통제하는 1차 예방과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 노출의 경우 85dB(A)을 8시간 노출 기준으로 정해 그 이상이면 보호구 착용과 작업환경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무스트레스 같은 심리사회적 위험은 이런 예방적 기준이 없이 질병이 발생한 뒤에야 위험했다고 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둘째, 실제 안전선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통계적 cut-off 값은 민감도와 특이도의 균형에 맞춘 인위적 경계일 뿐 근로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건강 기반 기준(health-based thresholds)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KOSS 설문 점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상대적 비교에는 유용하지만 이 값이 곧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절대적 임계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 4 - <https://52letter.stibee.com/p/147>